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2) 5·18 문화콘텐츠 현황 <상>

문학·미술·연극... 그들의 방식으로 그날의 아픔을 전하다

<목 차>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획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시인·소설가·연극인·미술작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에 오월 새겨 김준태 시인, 5·18 다룬 최초 작품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임철우, 5·18 첫 소설 '봄날' 발간 극단 '광대' '신명' '토박이' 등 시민궐기대회 주도 민중문화 이끌어



신군부가 검열한 1980년 6월 2일자 광주일보 (옛 전남매일신문) 1면(왼쪽)과 실제 발행본. 신군부는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상당 부분을 지면에 실지 못하게 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싸운 시민군은 우리에게 5·18 주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시민군 외에도 시인, 소설가, 연극인, 미술작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그들이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

김준태 시인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통해 그날의 참혹함을 알렸고, 소설가 임철우는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먼저 담은 소설 '봄날'을 발간했다. 또 극단 '광대'는 항쟁 기간 동안 도청 앞 분수대에서 매일 시민 궐기대회를 주도하며 민중 문화 운동을 이끌었다. 지역 미술인들도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길게그림을 제작해 집회현장으로 나서는 등 지역 문화계와 시민의 연대는 그날의 항쟁을 공동체적 정서로 이끌어갔고 싸움의 주체인 민중의 의지를 더욱 고양시켰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은 지금, 문학,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에 새겨진 80년 오월을 만나보자.

◇오월문학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최초의 작품은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이다. 1980년 6월 2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에 실린 이 작품은 검열에 의해 삭제된 형태로 발표됐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981년 '5월시' 동인이 결성됐고 첫 작품집을 간행했다. 김진경, 곽재구, 박봉구, 이영진 등이 주축이 된 젊은 시인들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황지우, 김정환, 김사인 등이 동인 '시와 경제'를 결성해 활동했다. 이들 동인들은 모두 1980년대의 젊은 시인들로서, 고은은 이들에게 '항쟁정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을 가장 먼저 소설화한 작가는 임철우로 그는 1984년 '봄날'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동행', '직선과 독가스', '불입기', '동전 몇 닢', '알 수 없는 일' 등 5월에서 발원하거나 5월을 연상시키는 여러 유형의 작품을 선보였다.

1985년 발표된 윤정모의 '봄길'에서는 5월항쟁을 역사에 알리기 위해 살아 남은 자의 심리를 그리고 있으며, 공선욱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찌앗 불' (1992·창작과 비평 겨울호)도 광주 이후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씨는 이후 '목숨' (1992), '목마른 계절' (1993)에서 5월 광주를 담아냈으며 1992년에 발표된 정찬의 '완전한 영혼'도 살아남은 자의 고통스런 삶을 추적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박호재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정도상의 '십오방 이야기', 홍희담의 '깃발' 등도 광주항쟁을 형상화했고 1985년 초판 출간 당시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이재의·전용호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를 비롯해 '작전명령·화려한 외출', '찢어진 깃폭' 등도 광주민중항쟁을 담고 있다.

◇민중미술

민중미술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과 그 반작용으로 제5공화국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던 무렵에 등장한 미술 흐름의 한 형태이다.

한국의 민중미술은 1969년 오윤·임세택·김지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와 소설 '봄날'



홍성담 작 '대동세상' (1984)

등이 '현실동인'을 결성한 것이 시초이며, 1979년 김정현·오윤·주재환 같은 예술가들과 성완경·최민 등 평론가들이 '현실과 발언' 동인회를, 홍성담·최열 등은 '광주자우미술인협회'를 결성했다. 이외에도 민중미술 작가들은 1982년 '임술년', 1983년 '두

령' 등의 창작집단을 결성해 활동했다.

광주·전남 작가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담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작품으로 담았기에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들 작가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사실적 또는 은유적 방법으로 표현했으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담아내었다.

'5월광주'를 표현한 작품으로는 5월시 동인들의 시인 조진호·김경주가 만든 5월시 판화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와 풀빛 판화시집 등이 있다. 또 홍성담의 '광주민중항쟁도' 판화는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으며, 그가 주도한 '시민미술학교'는 시민들이 판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대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길게그림'의 기본 형식이 마련됐다. 길게그림은 깃발·백포·플래카드 등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 모인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초의 길게그림은 1984년 광주문화 큰잔치 등에 사용된 '민중의 싸움'이다. 또 5·18광주항쟁이 8주년 되던 88년 5월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걸렸던 '오월에서 통일로'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형태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오월연극

연극은 그 발생부터가 민중적이다. 고대에 연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한 축제였으며, 관객과 배우의 구별이 없는 공동체의 삶 그 자체였다. 연극은 또한 민중의 정치적 심혼을 일깨우는 예술이었다.

1980년 이후 5월을 담아내는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낸 건 대학연극이었다. 일반 극단이 5월을 다룬

연극을 올린다는 건 하나의 금기였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극을 상연해왔다.

이후 5월 연극은 대학에서 사회로 퍼져나가 일반 극단에서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전문 마당극단인 극단 '신명'은 1982년 8월에 창단해 1983년 '넝쿨이'로 시작해 지금까지 '호랑이 놀이', '88일어나는 사람들', '어머니! 당신의 아들', '97일어나는 사람들', '금남로 사랑', '연제가 봄날에' 등을 무대에 올리며 오월을 기억했다. 특히 '일어나는 사람들'은 마당극 고유의 극작술로 5월을 그려내고 있다.

극단 토박이는 1987년부터 '잡행', '금희의 오월', '모란꽃',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청실홍실', '상중', '오!금남식당' 등을 통해 80년 5월의 의미와 당시의 참상 등을 전해오고 있다.

두 극단은 1988년 3월 서울 미려내 극장에서 열린 '민중극 한마당'에 함께 참여해 5월 극을 선보였다. 신명은 '일어나는 사람들'을 토박이는 '금희의 5월'을 공연했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처음 선보인 5월 연극으로 평가된다.

토박이는 이후에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다룬 노동극 '땀과 함께 일하라' (1990) 등을 무대에 올렸다.

이밖에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1997년 '뭇다부른 그해 오월의 노래'에서 출발해 '오월의 신부', '꿈, 어떤 맑은 날', '망월', '한남자', '오월의 석류', '그들의 새벽', '고백:얼굴 뒤의 얼굴'과 같이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80년 5월, 진실과 거짓의 40년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모든 일상이 멈췄다. 멈춰진 일상의 평온함은 두려움과 공포가 채워진다. 생명의 계절이 죽음의 시간으로 흐르는 찰나의 경계에서 시민들은 놀랄 만한 반전을 이룬다. 40년 전 봄날의 남녘처럼, 시민들은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공포로부터 공동체의 안위를 지켜가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40년 전 남녘의 시민들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냈다면 지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공포를 극복하고 있다.

오늘의 일상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멈춰 섰다면, 40년 전 광주는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때문이었다. 신군부는 잔혹한 폭력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숨을 강요했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딛고 계엄군의 가공할만한 폭력에 맞섰다. 시민들의 저항에 놀란 신군부는 도시 전체를 봉쇄했다. 신군부는 도시를 봉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시민들이 저지

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전달한다는 언론은 권력에 굴종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월의 진실은 정점의 영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은 이들에게 호도된 진실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됐다.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왜 그렇게 많은 5·18피해자들이 80년 5월 이후 생을 스스로 마감했는지 묻는 것은 우문일뿐이다. 5월의 트라우마는 진실규명을 통한 사회적 치유의 과정에서만 오롯이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뒤늦은 질문이더라도 왜 지금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40년 동안 80년 5월의 진실이 거짓으로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신군부의 철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의 철저함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 12년 동안 5·18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5·18관련 군 기

록 대부분을 폐기하고 사실을 조작했다. 이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서 5·18왜곡 조사를 비밀리에 구성했다. 1985년의 80위원회와 1988년 511연구위원회가 대표적인 조직이다.

5·18왜곡 조직의 존재는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발굴할 때까지 은폐됐다. 아무리 비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수사에서 수백명인데 단 한명의 양심선언이나 외부 누설없이 운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의 진실을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 광주 청문회도 사실은 거대한 트루먼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가해자의 철저함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는 동인이 됐다. 반면에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가해자의 노력을 뛰어넘지 못했다. 5·18연구자라는 허명이 부끄러운 이유이다.

40년 동안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정치권의 책임도 상당하다.

이들은 진실규명을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이용



한다. 5·18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20년 1월 전 국방부 차관 서주석을 국방안

보 특보로 임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반면에 서주석은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군사정권의 5·18왜곡 비밀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주석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을 역임할 정도로 개혁적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5·18왜곡 조직의 실체가 규명되면서 서주석의 과거 행적이 발각됐다. 서주석은 왜곡조직 편성표에 실무위원으로 기재될 정도의 비중있는 인물로서 주로 5·18에 대한 왜곡 논리를 제공했다.

5·18을 부정하고 왜곡했던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5월 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여당 대표의 특보로 임명되는 상황은 과거 친일파 청산의 데자뷰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진실을 왜곡했던 인물을 중용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안보관련 전문가 영입이 어려운 여건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5·18왜곡 전력에 있는 인물을 특보로 임명했다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피조사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집권여당의 국방안보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결실들로 작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서주석이 참여한 511 연구위원회 등 5·18왜곡 조직에 관한 조사를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의 지원 부처는 국방부다. 국방부 전직 차관이자 집권여당의 국방안보특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의문이다. 2017년 서주석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압력과 비호를 목도했기에 단순한 기우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80년 5월의 진실규명을 전두환등 신군부세력만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세력도 거짓 40년의 동조자인 것이다.